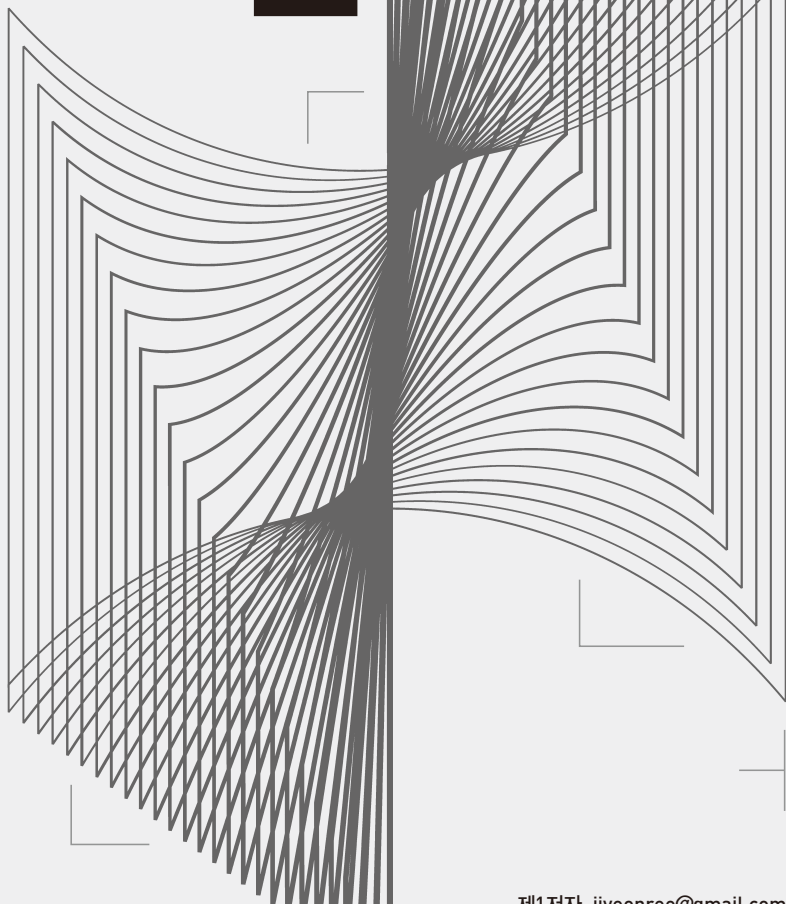


논단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제59호

(2026/여름)



제1저자. jiyeonree@gmail.com

짐멜 사회학의 재구성

결합과 분리의 양가성을 중심으로

이지연(강원대학교 · 사회학과 · 강사)

<https://doi.org/10.21738/JHS.2026.8.59.243>

I. 서론

■ 오늘날 사회학을 비롯한 인문사회학은 학문적 정당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질문에 직면하고 있다. 대학 교육에서 실용성과 사회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면서, 인문사회학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사회적 의미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개인화와 사회적 관계의 변화 속에서 ‘사회’는 더 이상 자명한 경험의 대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학이 무엇을 탐구하며 어떠한 사유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가 짐멜의 사회학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회학은 오랫동안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극적 상황에 주목해 왔다. 마치 비극을 발견하는 일이 곧 사회를 발견하는 일인 것처럼, 사회학은 개인의 의도와 사회적 결과 사이의 괴리를 반복적으로 탐구해 왔으며, 이러한 관심은 오늘날까지도 사회학의 중요한 이론적 전통을 이루고 있다. 이는 사회가 개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독자적 질서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사회학은 개인을 넘어서는 사회적 과정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과정이 다시 개인의 삶을 어떻게 제약하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해 왔다.

오귀스트 콩트는 프랑스 혁명 이후의 사회 혼란을 인간의 의지나 정치적 결단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사회 역시 자연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초월하는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사회 재조직의 과정은 그러한 법칙을 과학적으로 발견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의 경제적 활동이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경제 위기와 계급 갈등이라는 결과를 낳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막스 베버는 종교적 구원을 추구하던 금욕적 실천이 결과적으로 근대 자본주의를 형성하였지만, 그렇게 형성된 질서는 다시 개인을 구속하는 구조가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에밀 뒤르켐 역시 사회적 사실이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며 개인에게 구속력을 행사한다고 보았고, 개인의 가장 내밀한 고통조차 사회적 조건과 분리하여 이해할 수 없음을 밝혔다.¹

이처럼 사회학은 개인을 넘어서는 사회의 존재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탐구해 왔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 설정을 잠정적으로 ‘사회학적 비극’이라 부르고자 한다. 이는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적 관계와 제도가 다시 개인에게 독립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개인의 행위 가능성을 제약하는 역설적 구조를 의미한다. 말하자면 ‘개인 대 사회의 비극’을 포착하는 것은 사회학을 구성해 온 중요한 문제설정 가운데 하나였다. 사회학은 사회의 비극을 서술하고, 그 비극의 원인을 규명하며 해결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문제설정은 사회를 개인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실체로 파악하는 관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이 이러한 비극적 구조에만 한정될 필요는 없다. 사회는 개인을 넘어서는 외부적 힘으로만 존재하는

1 Auguste Comte, *Discours sur l'esprit positif* (1844), 김점석 옮김, 『실증주의 서설』, 한길사, 2001; Émile Durkheim, *Les Règles de la méthode sociologique* (1895), 윤철·박창호 옮김, 『사회학적 방법의 규칙』, 새물결, 2001; Émile Durkheim, *Le Suicide: Étude de sociologie* (1897), 김충선 옮김, 『자살론: 사회학적 연구』, 청아출판사, 1994; Karl Marx,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1867), 김수행 옮김, 『자본론: 정치경제학 비판』, 비봉출판사, 2015; Max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1904–1905), 박성수 옮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문예출판사, 1996.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또 다른 원리와 사회학적 상상력을 모색할 수 있다.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우리는 타자를 통해 삶의 의미와 기쁨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제약 역시 경험한다. 인간의 삶은 타자 없이는 성립할 수 없으면서도, 바로 그 타자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역설을 지닌다. 이러한 인간 존재의 특성을 사회학자 미타 무네스케(見田宗介)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타자는 첫째로, 인간에게 삶의 의미와 기쁨, 그리고 감동을 제공하는 원천이다. 모든 타자가 사라진 우주에서 홀로 영원히 존재하는 삶은 죽음과 다를 바 없다. 타자는 둘째로, 인간이 겪는 불행과 제약의 대부분을 만들어내는 원천이기도 하다. 사르트르의 “지옥은 타자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상상의 영역이 아닌 현실 속의 지옥은 (예외적인 경우를 억지로 상정해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타자로 인한 지옥에 다름없다.²

미타 무네스케의 논의가 보여주듯, 인간 존재는 타자를 통해 삶의 의미를 획득하는 동시에, 타자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는 양가적 구조를 지닌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양가성(Ambivalenz)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꾼다는 점이다. 사회적 비극은 단순히 개인과 사회의 대립 속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추상적인 사회와 마주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타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리

2 見田宗介, 「交響圏とルール圏——社会構造の重層理論」, 井上俊ほか編『岩波講座現代社会学26 社会構想の社会学』, 岩波書店, 1996, pp.152~153.

고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삶의 가장 큰 기쁨과 가장 깊은 고통을 동시에 경험한다.

그렇다면 사회를 이해하는 또 다른 출발점은 사회가 만들어내는 비극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가 지닌 양가성을 이해하는 데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를 개인과 대립하는 거대한 실체로 상정하기보다, 사회가 가능해지는 관계 자체를 사유하는 것이다. 미타의 논의는 이러한 관점을 제시하며, 이는 사회를 상호작용과 관계의 형식으로 파악한 짐멜 사회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이론적 단서를 제공한다.

게오르크 짐멜은 사회를 개인과 대립하는 실체로 이해하기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그의 사회학은 ‘개인 대 사회’라는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사회학적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짐멜 사회학을 결합과 분리의 양가성이라는 관계 형식을 중심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도 짐멜 사회학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기존 연구는 짐멜의 문화이론, 모더니티, 이방인, 삶의 철학 등 특정 개념과 주제를 중심으로 그의 사상을 조명해 왔다. 김덕영은 짐멜의 사회·문화 이론과 모더니티론을 체계적으로 소개하였으며, 신웅철은 문화철학적 관점에서 짐멜 사상의 의미를 탐구하였다. 또한 김광기는 이방인 개념을 중심으로 짐멜 사회학의 현대적 함의를 분석하였고, 홍경자는 삶과 비극 개념을 통해 짐멜 사상의 철학적 의미를 검토하였다.³

3 국내 짐멜 연구의 주요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김덕영, 『현대의 현상학』, 나남출판, 1999; 김덕영, 『게오르크 짐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 길, 2007; 게오르크 짐멜, 『게오르크 짐멜의 문화이론』, 김덕영·배정희 옮김, 길, 2007; 김광기, 「『이방인』의 사회학을 위한 이론적 정초」, 『한국사회학』 38(6), 2004; 김광기, 「코로나19와 이방인: 현상학적 조망에서」, 『사회이론』 59, 2021; 신웅철, 「문화의

이러한 연구들은 짐멜 사상의 다양한 측면을 밝히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지만, 짐멜의 여러 사회학적 논의를 관계 형성의 원리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특히 제3자의 매개, 갈등, 비밀, 대도시, 사교 등 서로 다른 사회적 형식들이 결합과 분리라는 관계의 양가성 속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짐멜의 다양한 사회학적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 형성의 원리를 ‘결합과 분리의 양가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개인 대 사회’라는 문제 틀이 등장하기 이전의 자리에서 사회라는 것, 혹은 타자라는 것이 본래 내포하고 있는 관계의 구조를 발견하는 작업이다. 즉 타자가 즐거움과 감동의 근원인 동시에 불행과 제약의 근원이 되는 양가적 자리에서, 개인과 대립하는 사회를 설정하지 않은 채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사회학이 사회의 비극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함께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기쁨과 즐거움까지 어떻게 사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II. 상호작용의 사회학

1. 사회와 개인의 실체 비판

‘사회학적 비극’ 혹은 ‘개인 대 사회’라는 구도와는 다른 사회

본질로서 상징, 상징적 존재로서 인간, 『해석학연구』 21, 2008; 신응철, 「현대 문화의 본질과 위기 그리고 인간」, 『인간연구』 17, 2009; 홍경자, 「짐멜의 비극적인 것」, 『해석학연구』 8, 2001; 홍경자, 「짐멜과 야스퍼스에서의 삶과 정신의 문제」, 『동서철학연구』 35, 2005.

학적 발상의 원천 가운데 하나로 짐멜의 사회학을 들 수 있다. 짐멜의 사회학은 타자의 양가성에 주목하고, ‘개인 대 사회’라는 대립 구도를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먼저 다소 상투적인 소개일 수 있지만, ‘개인 대 사회’라는 구도에 대한 그의 논의를 확인해 보자.

『사회분화론(Über soziale Differenzierung)』 서론 「사회학의 인식론」에서 짐멜은 사회를 하나의 독립적인 실재로 보는 관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사회가 개별 인간들의 단순한 집합에 불과하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인들뿐이며 ‘사회’라는 개념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게 된다. 짐멜은 이러한 의문이 “틀리지 않다”고 말한다.⁴ 그러나 그렇다면 반대로 개인은 하나의 완결된 실재라고 할 수 있을까. 짐멜은 개별 인간 역시 “완결된 통일체”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본다. 인간은 다양한 우연적 영향과 여러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⁵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 역시 완결된 하나의 실체로 보기 어렵다. 결국 짐멜은 ‘사회’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인식도, ‘개인’이 완결된 실체로 존재한다는 인식도 일종의 착각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사회도 개인도 없다면 무엇이 있는가. 짐멜이 주목하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되는 조건이다. 그것은 각 부분 사이에 상호작용이 존재할 때이다. 하나의 생명체가 통일된 존재로 간주되는 이유는 그 내부의 여러 부분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⁶ 이러

4 Georg Simmel, *Über soziale Differenzierung: Sociologische und psychologische Untersuchungen*, Duncker & Humblot, 1890. = 居安正訳『社会分化論—社会学のおよび心理学の研究』, 『現代社会学大系1 社会分化論・宗教社会学』, 青木書店, 1998, p.14(이하 『社会分化論』으로 표기함).

5 『社会分化論』, p.15.

6 『社会分化論』, p.16.

한 논리는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우리가 국가, 회사, 가족과 같은 것을 하나의 사회적 단위로 인식하는 것은 그 범위 안에서 개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밀집되어 있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 범위 밖에서는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따라서 사회란 실체적으로 확정된 개념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수와 긴밀성의 정도에 따라 다른 것과 구분되어 나타나는 “정도상의 개념”이다.⁷

이러한 관점은 ‘개인’이라는 통일체로 보이는 것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짐멜은 인격을 “무수한 사회적 실(sozialen Fäden)의 교차점”이라고 표현한다.⁸ 결국 우리가 규제적인 세계 원리로서 인정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은 모든 것과 어떤 형태로든 상호작용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⁹ 다시 말해, 실재하는 것은 개인도 사회도 아니라, 개인과 사회를 그러한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상호작용의 전체를 ‘사회’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다만 이때 짐멜이 이해하는 ‘사회’는 콩트, 마르크스, 베버, 뒤르켐 등이 ‘개인’과 대립시키고, 그 사이에서 비극을 발견했던 의미에서의 사회와는 구별된다.

2. 상호작용과 사회화

이러한 관점은 『사회학(Soziologie)』(1908)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된다. 짐멜은 여기에서 상호작용을 사회의 본질로 파악한다.¹⁰ 즉 사

7 『社会分化論』, p.18.

8 『社会分化論』, p.113.

9 『社会分化論』, p.17.

10 Georg Simmel, *Soziologie: Untersuchungen über die Formen der Vergesellschaftung*, Duncker & Humblot, 1908. = 居安正訳『社会学—社会化の諸形式についての研究』(上), 白水社, 1994, p.15(이

회를 이미 완성된 실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형성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눈길을 주고받거나, 질투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함께 식사하고, 서로 동정하거나 반감을 품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행위들 역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순간적이든 지속적이든, 의식되든 의식되지 않든, 약하든 강하든 간에 우리를 끊임없이 연결한다. 매 순간 이러한 실들이 엮이고 풀어지며, 다른 실들과 교차하여 다시 엮인다. 여기에는 사회의 원자들 사이에서 심리학적 현미경으로만 포착될 수 있는 상호작용이 놓여 있으며, 바로 이 상호작용 속에 사회생활의 강인함과 탄력성, 그리고 놀라운 다양성과 통일성이 동시에 담겨 있다.¹¹

짐멜은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사회화(Vergesellschaftung)라고 부른다. 개인의 맞은편에 자리한 실체로서의 ‘사회’(Gesellschaft)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즉 ‘사회화’를 포착하는 사회학을 그는 제안한다. 다시 말해, 여기서 제시되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사회학’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는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예를 들어 베버는 종교적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개인과 ‘철의 감옥’으로서의 사회 사이의 비극적인 단절을 그려내며, 그것을 사색하는 것을 사회학의 과제로 삼았다. 콩트, 마르크스, 뒤르켐 역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개인과 사회’ 사이의 비극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짐멜의 사회학에서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개인도 사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비극 자체가 문제로 설정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 『社会学』(上)으로 표기함).

11 『社会学』(上), p.30.

상호작용뿐이다.

짐멜이 포착한 것은 ‘타자의 양가성’이 아닐까. 그 원초적인 양가성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맺어지는 상호작용과 관계의 양태,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가져오는 불행과 제약뿐만 아니라 환희나 감동을 짐멜은 집요하게 그려낸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어떠한 ‘현미경’을 통해 발견된 것일까. 다음 장에서는 짐멜이 발견한 타자의 양가성을 논하고자 한다. 짐멜의 사상과 그의 잘 알려진 텍스트에서 이를 추출해낸 본 연구의 관점이 지금까지 서술한 기존 구도의 사회학과 얼마나 다른 가능성을 지니는지, 그리고 짐멜의 센스와 태도가 지닌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III. 결합과 분리의 양가성

1. 결합과 분리의 관계적 구조

짐멜은 다양한 상호작용을 분석하면서 반복적으로 ‘통일’과 ‘분열’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한다. 그는 『사회학』에서 “사회학적 형성으로서 고찰하여 흥미로운 것은 두 개인 각각에서 진행되는 심리적 계열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통일과 분열이라는 범주 아래서의 양자의 개관”이라고 한다.¹² 이처럼 짐멜은 상호작용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할 때 개별 인간의 ‘마음’이나 내면 상태 그 자체보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는 서로 대립하는 두 요소가 공존하며, 이들은 대립하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보완하는

12 『社会学』(上), p.33.

방식으로 작동한다. ‘통일’과 ‘분열’로 나타나는 상호작용은 서로를 ‘묶는’ 동시에 ‘가르는’ 양가성을 지닌다.

일상적인 인식에서 우리는 대개 이 가운데 하나만을 발견한다. 여기에는 ‘분리’가 있다, 즉 ‘결합’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하거나, 혹은 여기에는 ‘결합’이 있다, 즉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인식하는 식이다. 그러나 짐멜은 항상 ‘분리’와 동시에 ‘결합’을, ‘결합’과 동시에 ‘분리’를 발견한다.

짐멜이 이러한 두 요소를 일관되게 발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는 「다리과 문(Brücke und Tür)」(1909), 「액자(Rahmen)」(1902)와 같이 일상적이고 사소한 대상들을 다룬 에세이에서 잘 드러난다.¹³ 예컨대 그는 ‘다리’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A라는 마을과 B라는 마을이 서로 떨어져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두 마을 사이에 다리가 놓이게 되면, 사람들은 이전보다 쉽게 두 공간을 오갈 수 있게 된다. 다리는 이처럼 서로 분리되어 있는 두 공간을 연결하지만, 동시에 그 연결을 통해 두 마을이 애초에 서로 구별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 ‘문’ 역시 열려 있을 때에는 두 공간을 연결하지만, 닫히는 순간 단순한 벽 이상으로 두 공간 사이의 차단을 강하게 체감하게 한다. 이처럼 인간은 사물을 결합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항상 분리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다.

짐멜이 반복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결합’과 ‘분리’가 동시에 나타나는 영역, 즉 ‘경계’이다. 이러한 양가성은 ‘액자’의 경우에도 확인된다. 액자는 회화라는 예술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의 경계에 놓여 있다. 액자는 회화를 자기완결적인 전체로서 외부와 분리하는 동시에, 주변 환경과 구별되는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성립하

13 Georg Simmel, “Brücke und Tür”, *Der Tag*, 15. September, 1909. = 김덕영 · 윤미애 옮김, 「5. 다리와 문」,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pp.263~270.

게 된다. 이처럼 짐멜은 경계에서 나타나는 ‘결합’과 ‘분리’의 양가성을 곤혹스러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관계의 구조로서 반복적으로 포착한다.

2. 제3자의 매개와 사회적 통일체의 형성

그러나 앞의 논의는 아직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에 머물러 있을 뿐, 곧바로 ‘사회학’의 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짐멜은 이러한 양가성을 그가 말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발견할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학』으로 돌아가, 두 가지 논의를 예로 들어 살펴보자.

제2장 「집단의 양적 규정(Die quantitative Bestimmung der Gruppe)」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몇 명에 의해 구성되는지, 즉 ‘수’의 차이가 상호작용 자체의 질적 변화를 낳는다는 점을 분석한 장이다. 여기서 짐멜은 2인 관계(dyad)와 3인 관계(triad)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2인 관계는 강하게 결합된 관계이면서 동시에 분리된 관계이다. 예컨대 연인 관계는 상대와의 직접적인 대면과 상호 매력, 호감을 통해 강한 친밀성과 결속을 형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하나의 독립된 ‘우리’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의존하지만, 그 관계는 개인적 상호의존 관계 내부에 머물며, ‘나’와 ‘너’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전체를 형성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2인 관계는 매우 강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지만, 관계가 해체되면 각자는 다시 독립된 개인으로 돌아가게 된다.¹⁴

그러나 이 2인 관계에서 자녀가 탄생하는 경우, 기존의 관계는

14 『社会学』(上), p.97.

더 이상 두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제3자의 등장에 따라 기존의 관계는 새로운 구조로 재편되고, 관계의 성격 역시 근본적으로 변화한다. 제3자의 등장으로 인해 두 개인의 관계는 초개인적·객관적 통일체를 형성하게 된다. 즉 ‘나’와 ‘너’였던 부부는 ‘우리’가 되며, 자녀라는 제3자에 대해 두 사람은 ‘부모’라는 지위를 획득한다. 동시에 자녀와 부부 전체는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통일체를 형성하게 된다. 짐멜은 바로 이 지점에서 ‘결합’과 ‘분리’의 양가성을 발견한다. 한편으로 부부는 자녀를 통해 형성된 통일체를 유지하기 위해 더욱 강하게 결합할 수 있다. 짐멜에 따르면 자녀는 부부를 결합시키기 때문에, 이미 내적으로 소원해지고 식어버린 부부는 자녀를 원하지 않게 된다.¹⁵ 그러나 흥미롭게도 친밀한 부부 역시 자녀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자녀가 분리시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와 ‘너’가 서로만을 대상으로 직접 결합해 있던 관계는 자녀라는 제3자의 등장으로 통일체로 재구성되며, 더 이상 서로만을 향한 직접적인 결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나’와 ‘너’ 사이의 직접적인 결합과 분리의 양가성은 제3자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다. 짐멜의 관심은 단순히 인원수가 증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관계의 형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있다. 그는 두 사람 관계에서 세 사람 관계로의 이행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결합이 새로운 분리를 수반하고 분리 역시 새로운 결합의 조건이 되는 사회적 관계의 구조적 긴장을 드러낸다.

15 『社会学』(上), p.99.

3. 갈등과 사회화의 역설

결합과 분리의 양가성은 갈등의 형식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언뜻 보면 갈등의 원인이 되는 증오, 질투, 경쟁은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짐멜은 『사회학』 제4장 「갈등 (Streit)」에서 갈등 역시 사람과 사람을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파악한다. 더 나아가 다툼이 전혀 없는 관계가 가장 강한 ‘결합’을 낳는지에 대해서도 그는 회의적이다. 그는 “어떤 집단이 단순히 구심적·조화적이며, 단순한 ‘결합’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험적으로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본래적인 역동적 과정과도 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¹⁶

모든 상호작용이 ‘사회화’라면, 갈등은 그 가운데 가장 생생한 상호작용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갈등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오히려 상대를 강하게 의식하며 지속적으로 반응한다. 증오, 질투, 경쟁과 같은 감정 역시 상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계를 전제한다. 이 점에서 갈등은 관계의 부재가 아니라, 부정적 형태로 나타나는 상호작용이다. 갈등은 상대를 부정하려는 행위이지만, 바로 그 부정을 위해 서라도 상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갈등은 관계를 해체할 가능성을 내포하면서도, 상대를 지속적으로 의식하고 반응하게 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는 상호작용이기도 하다.

예컨대 내부에 전혀 갈등이 없는 집단과 갈등이 존재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조정되는 집단을 비교해 보자. 전자의 경우 상호작용이 점차 감소하면서 ‘결합’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후자의 집단은 갈등과 조정의 실패가 반복될 경우 언젠가 ‘분리’나 ‘해체’에 이

16 『社会学』(上), p.263.

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바로 그 갈등과 조정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집단으로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구조는 집단 간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외부와의 대립 상황에서는 내부의 차이가 일시적으로 후퇴하면서 집단적 결속이 강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속은 동시에 새로운 분리를 낳는다. 외부와의 적대가 강화될수록 내부의 차이는 충성 여부나 소속의 기준에 따라 재구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갈등은 집단 내부의 통합을 강화하는 동시에 집단 외부와의 경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짐멜이 “어떤 형태로든 전투 상태에 있는 집단은 관용적이지 않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¹⁷

결국 갈등은 결합과 분리의 양가성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사회적 형식이다. 그것은 분리를 통해 결합을 형성하고, 결합 속에서 다시 새로운 분리를 생성한다. 따라서 사회는 조화와 협력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경쟁, 협력과 적대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과정 속에서 성립한다. 짐멜의 관점에서 갈등은 사회적 관계의 부정이 아니라 하나의 관계 형식이며, 오히려 완전한 무관심과 단절이야말로 사회적 관계의 소멸을 의미한다. 서로 대립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상대를 의식하며 상호작용하지만, 서로에게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순간 관계 자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17 『社会学』(上), p.324.

IV. 분리가 결합의 조건이 되는 구체적 사례

1. 냉담함과 대도시적 공존

일반적으로 결합은 긍정적인 것으로, 분리는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 역시 가능한 한 결합을 확대하고 분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짐멜은 이러한 이분법적 이해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에 따르면 지나친 친밀성과 근접은 오히려 관계를 긴장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으며, 일정한 거리와 비관여적 태도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분리는 결합의 반대가 아니라, 특정한 형태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적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짐멜의 사회학을 결합과 분리의 양가성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역설은 특히 「대도시와 정신적 삶(Die Großstädte und das Geistesleben)」(1903)에서 잘 드러난다.¹⁸ 짐멜에 따르면 대도시인의 정신적 태도는 흔히 “냉담함”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는 “만나는 사람 거의 대부분을 알고 그와 긍정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소도시나 농촌의 주민들이 보기에는 차갑고 무정한 태도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짐멜은 이러한 태도를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대도시의 생활 조건에 대응하기 위해 형성된 정신적 태도로 설명한다.¹⁹

짐멜에 따르면 소도시의 삶이 비교적 느리고 익숙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대도시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외적·내적

18 Georg Simmel, “Die Großstädte und das Geistesleben”, *Jahrbuch der Gehe-Stiftung*, Bd. IX, 1903. = 김덕영 · 윤미애 옮김, 「2. 대도시와 정신적 삶」,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pp.35~53.(이하 「대도시와 정신적 삶」으로 표기함).

19 「대도시와 정신적 삶」, p.43.

자극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이처럼 빠르고 지속적인 자극은 개인의 신경계를 긴장시키며, 대도시인의 정신적 삶은 본질적으로 “신경과민”적 성격을 띠게 된다.²⁰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감정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한다면 정신적 과부하를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도시인은 모든 관계에 동일한 감정적 에너지를 투입하기보다, 보다 계산적이고 지적인 태도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게 된다. 짐멜은 이러한 태도가 인간성의 결핍이 아니라 대도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형성된 정신적 태도라고 설명한다.²¹

따라서 도시인의 냉담함은 단순한 무관심이나 타인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타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유보성(Reserviertheit)의 형태로 나타난다. 짐멜은 대도시 공간에는 냉담함뿐만 아니라 의식되지 않는 반감과 상호적 적대감 역시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만약 사람들이 소규모 공동체에서와 같은 친밀성의 태도로 무수한 타인들과 관계를 맺으려 한다면, 그러한 관계는 쉽게 “증오와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²² 따라서 대도시인의 거리두기는 타인을 배제하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 잠재적 갈등을 조절하고 다수의 타인과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냉담함은 사회적 결합의 부재라기보다, 대도시적 조건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화를 가능하게 하는 관계 형식이다. 그것은 직접적인 친밀성에 기반한 결합은 아니지만, 일정한 거리를 통해 서로 다른 개인들이 동일한 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불쾌감이나 반감을 느끼더라도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같은 공간에서 공존

20 「대도시와 정신적 삶」, p.36.

21 「대도시와 정신적 삶」, p.37.

22 「대도시와 정신적 삶」, p.43.

할 수 있다. 즉 대도시의 거리두기는 관계의 단절이라기보다, 과도한 접촉과 갈등을 조절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 형식이다. 짐멜은 이러한 태도가 없다면 복잡한 대도시 생활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았다.²³ 더 나아가 짐멜은 대도시의 냉담함과 거리 유지가 개인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태도가 “개인들에게 일정한 방식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데, 다른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정도의 자유를 누리기 어렵다”고 설명한다.²⁴ 소규모 공동체에서는 친밀한 관계와 높은 상호 인지가 개인에게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행동이 공동체의 기대와 규범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평가되기 쉽다.²⁵

반면 대도시에서는 상호 간의 거리 유지와 비관여적 태도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은 타인의 지속적인 평가와 간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자유는 군중 속의 고독과 소외라는 대가를 수반한다. 그러나 짐멜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리가 단순한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이라는 점이다.²⁶ 결국 대도시의 냉담함은 사회적 관계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와 분리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형식이다. 대도시에서 사람들은 서로 긴밀하게 결합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같은 공간에서 공존한다. 따라서 짐멜의 관점에서 분리는 결합의 반대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개인들이 함께 존재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도시의 냉담함은 결합과 분리의 양가성

23 「대도시와 정신적 삶」, p.44.

24 「대도시와 정신적 삶」, p.44.

25 「대도시와 정신적 삶」, p.45.

26 「대도시와 정신적 삶」, p.47.

이 현대 사회에서 작동하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거리 유지

『사회학』의 제5장 「비밀과 비밀결사(Das Geheimnis und die geheime Gesellschaft)」에서 짐멜은 인간관계의 이상을 완벽한 상호 이해, 말하자면 비밀이 없는 관계로 보는 통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할수록 관계가 더욱 친밀하고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짐멜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는 단순히 상호 이해의 확대를 통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는 이해와 더불어 일정한 거리와 유보, 그리고 상호적 불투명성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불투명성이란 단순히 상대를 알지 못하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완전히 접근할 수 없는 영역과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

짐멜은 인간이 타인을 완전히 인식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는 상대의 일부 측면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며, 타인의 내면 전체에 도달할 수는 없다. 따라서 모든 사회적 관계에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무지가 포함된다.²⁷ 그러나 이러한 무지는 관계의 결함이 아니라 관계를 구성하는 조건이다. 관계는 완전한 이해를 통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전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도 상대를 인정하고 관계를 지속하려는 태도 속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점에서 짐멜은 사회적 관계가 “협조, 조화, 협력”뿐 아니라 “거리, 경쟁, 반발” 역시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거리는 관계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구성하는 내적 요소이다. 그는

27 『社会学』(上), p.351.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관계가 존재한다면, 그 관계는 일정한 무지와 더불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일정한 상호 은폐를 전제로 한다”고 말한다.²⁸ 즉 사회적 결합은 서로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남과 감춤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가능하다. 관계는 이해와 오해, 친밀성과 거리, 공개와 은폐 사이의 긴장 속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짐멜이 말하는 ‘지인 관계(Bekanntschaft)’, 즉 일정한 친숙성과 거리를 동시에 지닌 관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인 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일정한 배려를 전제로 하며, 그 배려에는 상대가 감추고자 하는 비밀을 존중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알 수 있는 것까지 모두 알려고 하지 않는 절제가 포함된다. 짐멜은 이를 “상대의 인격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배려”라고 표현한다.²⁹ 이는 사회적 관계가 단순히 상대를 많이 앎으로써 심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독립성과 내면적 영역을 인정하는 거리 유지 속에서 지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원리는 가장 친밀한 관계에도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는 “완전한 개방과 투명성”을 이상적인 상태로 여긴다. 그러나 짐멜은 오히려 그러한 상태가 “관계의 장래를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한다.³⁰ 모든 것이 드러난 관계에서는 상대에게서 더 이상 발견할 것이 남아 있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관계의 긴장과 생동성이 약화될 수 있다. 반대로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대 안에 여전히 알 수 없는 영역이 남아 있어야 한다. 따라서 관계를 지속시키는 힘은 완전한 투명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드러나

28 『社会学』(上), p.358.

29 『社会学』(上), p.362.

30 『社会学』(上), p.369.

지 않은 가능성과 깊이에 대한 기대 속에 존재한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일수록 오히려 일정한 거리와 유보가 필요하다. 상대를 모두 알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관계를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상대의 독립적인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관계의 지속을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인식적 욕구를 일정하게 절제하고, 상대가 자신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짐멜은 이러한 태도가 관계의 매력과 생동성을 보존한다고 보았다.³¹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짐멜은 비밀을 단순한 은폐나 결핍이 아니라 사회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형식으로 이해한다. 그는 “비밀, 즉 적극적 또는 소극적 수단에 의해 유지되는 현실의 은폐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성취 가운데 하나이다. 유아적 상태에서는 모든 생각이 곧바로 말로 표현되고, 모든 시도가 모든 사람의 눈에 띄지만, 삶의 엄청난 확장은 바로 비밀에 의해 가능해진다”고 말한다.³² 비밀은 개인을 타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에게 독립적인 영역을 남겨둌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한다. 즉 비밀은 개인의 독립성과 사회적 결합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결국 짐멜에게 사회적 관계는 상호 이해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관계는 일정한 무지와 상호적 은폐, 그리고 거리 유지를 포함하는 양가적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 완전한 개방과 투명성이 관계의 이상이라는 통념과 달리, 짐멜은 드러남과 감춤, 친밀성과 거리의 긴장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조건이라고 보았다. 이 점에서 비밀과 거리 유지는 결합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독립성을 보존하면서 타자와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형식이라고 할

31 『社会学』(上), p.370.

32 『社会学』(上), p.371.

수 있다.

3. 사교와 유희

이러한 관점은 짐멜이 『사회학의 근본문제』에서 전개하는 사교(Geselligkeit) 개념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로 드러난다. 그는 사교를 “순수한 사회”라고 규정하며, 이를 “사회화의 유희적 형식”으로 설명한다.³³ 전술한 바와 같이, 짐멜에게서 ‘사회’란 상호작용 그 자체이며,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부른다. 한편 이러한 상호작용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목적, 종교적 신념, 에로틱한 욕망과 같은 일정한 내용이나 목적이 수반된다.³⁴ 그러나 짐멜은 이러한 구체적인 목적이나 내용에서 벗어나, 상호작용 자체가 목적이 되는 관계에 주목한다. 이것이 바로 ‘사교’이다.

예컨대 국가나 경제적 활동과 같은 사회적 결합에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사교라는 “순수한 사회”에서는 이러한 목적성이 유보되고, 관계 맺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상호작용이 성립한다. 짐멜은 이를 “사회가 유희가 되는 순간”이라고 표현한다.³⁵ 따라서 사교의 가치는 외부적인 성과나 결과가 아니라, 함께 어울리고 상호작용하는 과정 자체에서 발생하는 즐거움에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사교는 “사회적 유희”로 규정된다.

33 Georg Simmel, *Grundfragen der Soziologie: Individuum und Gesellschaft*, Walter de Gruyter, 1917. = 清水幾太郎『社会学の根本問題』, 岩波書店, 1979, pp.73~74(이하 『社会学の根本問題』로 표기함).

34 『社会学の根本問題』, p.67.

35 『社会学の根本問題』, p.81.

사교에서 유보되는 것은 상호작용의 목적이나 내용만이 아니다. 개인의 현실적인 사회적 지위나 조건 역시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지위, 부, 권력, 학식과 같은 사회적 차이는 사교의 중심이 되지 않으며, 생활상의 이해관계나 개인의 운명과 같은 지나치게 구체적인 사안 역시 사교의 형식을 해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 요소의 유보는 가면무도회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며, 참여자들은 현실적 조건을 가진 개인이라기보다 사교라는 형식의 한 요소로서 관계에 참여한다.³⁶ 사교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의 현실적 조건을 잠정적으로 유보한 채, 오직 순수한 인간성으로서의 능력, 매력, 관심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이러한 유보가 내면의 완전한 노출이나 개인성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교는 개인의 진정으로 주관적인 것과 순수한 내면성 앞에서 멈춘다.³⁷ 지나치게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얽히는 것도, 지나치게 개인적인 내면을 드러내는 것도 사교에는 적합하지 않다. 사교는 현실적 조건과 개인적 내면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서 상호작용 자체를 지속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형식 속에서 사교는 독특한 평등을 실현한다. 참여자들은 현실의 위계와 차이를 유보한 상태에서 서로를 평등하게 대하면서도 동시에 상호 존중을 유지한다. 짐멜에 따르면 사교는 “객관적 내용의 대부분을 유보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동시에 평등하게, 그리고 특별히 존중하는 듯이 대하는 유희”이다.³⁸ 중요한 것은 개인을 규정하는 현실적 조건을 잠정적으로 유보함으로써, 서로가 관계 그 자체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36 『社会学の根本問題』, pp.75~76.

37 『社会学の根本問題』, p.77.

38 『社会学の根本問題』, p.80.

짐멜이 언급하는 코케트리(coquetry, 교태)는 이러한 원리를 잘 보여준다. 남녀 사이에 에로틱한 호감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여기서 여성은 상대를 완전히 거부하지도, 완전히 수용하지도 않는 중간적 태도를 유지한다. 상대에게 접근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동시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완전한 ‘거부’도, 완전한 ‘수용’도 아닌 상태에서 관계를 지속시키는 유희적 상호작용이다. 결정이 유보된 상태에서 친밀성과 거리 사이를 오가는 이 관계는, 현실적 결말이 지연되는 한에서 지속될 수 있다. 반대로 관계가 완전히 성립하거나 완전히 단절되는 순간 이러한 유희적 긴장은 사라지고, 관계는 고정된 현실적 관계로 전환된다.³⁹

사교에서의 대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화의 내용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교적 대화가 아니다. 사교에서 대화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대화하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는 상호작용의 형식으로 기능한다.⁴⁰ 예컨대 “개인의 생명이 사회에 종속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가 개인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심각한 도덕적 문제조차 사교의 장에서는 유희의 형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사교는 “비극적인 것조차도 마찰이 제거된 형식적 세계 속에서 하나의 상징적 유희로 변환”하기 때문이다. 도덕적 관점에서 삶을 규정하는 중대한 관계인 ‘결합과 분리’ 역시 사교의 영역에서는 “깊이 있는 구체적 조건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나타난다.⁴¹

요컨대 사교에서는 구체적인 목적이나 이해관계, 그리고 삶의 비극이나 진실과 같은 실질적인 내용이 일단 유보된다. 오직 관계를

39 『社会学の根本問題』, pp.82~83.

40 『社会学の根本問題』, pp.85~86.

41 『社会学の根本問題』, p.87.

위한 관계,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지속된다. 사람들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동시에 서로에게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결합과 분리를 유희처럼 반복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교는 짐멜이 궁극적으로 그려낸 사회의 가장 ‘순수한’ 형상이며, 분리가 결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본고의 논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짐멜은 상호작용, 즉 타인과 관계 맺는 행위 그 자체에 내재한 양가성을 일관되게 포착해낸다. 그가 보여준 독특한 사회학적 감각은 관계 속에 ‘결합’이 있는지 혹은 ‘분리’가 있는지를 구분하기보다, 결합이 있기 때문에 분리가 있으며 분리가 있기 때문에 결합이 성립하는 장면을 발견하는 데 있다. 이는 관계란 ‘결합’할수록, 가까울수록, 따뜻할수록, 더 잘 이해할수록, 더 인격적일수록 바람직하다는 이른바 ‘통속적 견해’에 대한 의문이기도 하다.

짐멜에게서 관계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며,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고, 숨겨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력을 띠며, 일정한 비인격성이 있기 때문에 놀이가 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타인과 관계 맺는 ‘즐거움’의 사회적 형식을 그려낸다. 물론 이러한 양가성은 때로 긴장과 어려움으로 경험된다. 그러나 짐멜의 텍스트에서 그것은 삶의 결핍이나 비극으로만 그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사교’가 대표하듯, 사회는 ‘유희’의 형식으로 선명하게 기술되

며, 전면적인 ‘비극’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는 타자와 함께 있음이 지닌 즐거움과 불행, 매혹과 제약 사이를 오가는 미묘한 진동에 대한 매우 섬세한 기술을 발견할 수 있다.

본고가 다룬 것은 짐멜이 남긴 방대한 텍스트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 이미 이와 같은 분석을 가능하게 했던 그의 사회학적 감각은 오늘날에도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유효한 통찰을 제공한다. 물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짐멜 사회학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는 상호작용 속에서 양가성을 포착하는 감각과, ‘개인 대 사회’의 관계에서 비극을 발견하는 감각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회라는 기쁨이 언제나 이처럼 유희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강하게 결합하고, 거리가 사라지며, 집단적 열광 속에서 하나가 되는 순간에도 강렬한 사회적 기쁨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은 때로 사회적 결속을 만들어내는 힘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배제와 갈등, 나아가 비극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회학은 ‘사회라는 기쁨’과 ‘사회라는 비극’을 서로 분리된 것으로 다루기보다, 하나의 사회적 과정 속에서 함께 사유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짐멜이 보여준 결합과 분리의 양가성은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짐멜 사회학을 통해 오늘날 사회학과 인문사회학의 의미를 다시 질문하고자 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인문사회학은 실용성과 직접적인 사회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요구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인문사회학의 가치는 특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적 지식을 제공하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인간과 사회의 모습을 낯설게 바라보고, 인간이 서로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방식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학적 사유는 단순히 사회문제와 갈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넘어,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지적 호기심과 발견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관계와 상호작용이 어떠한 조건 속에서 형성되는지를 질문하고, 일상의 경험 속에 숨겨진 사회적 형식을 발견하는 것은 사회학이 제공하는 중요한 사유의 가능성이다. 짐멜의 사회학은 바로 이러한 사회학적 사유가 지닌 즐거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는 사회를 거대한 구조나 추상적 개념으로 설명하기보다, 인간들이 만나고 멀어지고, 연결되고 분리되는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것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탐구하였다.

따라서 짐멜 사회학의 재해석은 단순히 한 고전 사회학자의 이론을 정리하는 작업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학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가를 다시 성찰하는 작업이다. 결합과 분리의 양가성에 대한 짐멜의 통찰은 사회적 관계가 단순한 연결이나 통합이 아니라, 긴장과 차이를 포함하면서도 새로운 관계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사회학이 사회의 비극뿐만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내는 기쁨과 즐거움까지 함께 사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짐멜의 사회학을 오늘날 다시 읽는 의미일 것이다. 사회는 개인을 억압하는 외부적 실체이거나 개인들이 단순히 모여 있는 집합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멀어지고, 결합하고, 분리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그 과정에는 불행과 제약만 있는 것도,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도 아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함께 존재하고 다시 갈라지는 그 미묘한 움직임 자체가 사회를 만들어낸다. 짐멜이 보여준 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의 모

습을 바라보는 하나의 감각이며, 그것은 오늘날에도 인간과 사회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사회학적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

- 김광기, 「'이방인'의 사회학을 위한 이론적 정초」, 『한국사회학』 38(6), 한국사회학회, 2004, 1~29쪽.
- _____, 「코로나19와 이방인: 현상학적 조망에서」, 『사회이론』 59, 한국사회이론학회, 2021, 1~32쪽.
- 김덕영, 『현대의 현상학』, 나남출판, 1999.
- _____, 『게오르그 짐멜의 모더니티 풍경 11가지』, 도서출판 길, 2007.
- 게오르그 짐멜, 『게오르그 짐멜의 문화이론』, 김덕영·배정희 옮김, 도서출판 길, 2007.
- 신응철, 「문화의 본질로서 상징, 상징적 존재로서 인간: 카시러(E. Cassirer)의 견해를 중심으로」, 『해석학연구』 21, 한국해석학회, 2008, 111~138쪽.
- _____, 「현대 문화의 본질과 위기 그리고 인간: 게오르그 짐멜(Georg Simmel)의 문화철학을 중심으로」, 『인간연구』 17,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9, 107~129쪽.
- 홍경자, 「짐멜의 비극적인 것」, 『해석학연구』 8, 한국해석학회, 2001, 301~318쪽.
- _____, 「짐멜과 아스퍼스에서의 삶과 정신의 문제」, 『동서철학연구』 35, 한국동서철학회, 2005, 5~23쪽.
- Comte, Auguste, *Discours sur l'esprit positif*, Bachelier, 1844. = 김점석 옮김, 『실증주의 서설』, 한길사, 2001.
- Durkheim, Émile, *Les Règles de la méthode sociologique*, Félix Alcan, 1895. = 윤철·박창호 옮김, 『사회학적 방법의 규칙』, 새물결, 2001.
- _____, *Le Suicide: Étude de sociologie*, Félix Alcan, 1897. = 김충선 옮김, 『자살론:

사회학적 연구』, 청아출판사, 1994.

Marx, Karl, *Das Kapital: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Otto Meissner Verlag, 1867. = 김수행 옮김, 『자본론: 정치경제학 비판』, 비봉출판사, 2015.

Simmel, Georg, *Über soziale Differenzierung: Sociologische und psychologische Untersuchungen*, Duncker & Humblot, 1890. = 居安正訳, 「社会分化論—社会学のおよび心理学的研究」, 『現代社会学体系1 社会分化論・宗教社会学』, 青木書店, 1998, pp.3~159.

_____, “Die Großstädte und das Geistesleben“, *Jahrbuch der Gehe-Stiftung*, Bd. IX, 1903. = 김덕영·윤미애 옮김, 「대도시와 정신적 삶」, 『집현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pp.35~53.

_____, *Soziologie: Untersuchungen über die Formen der Vergesellschaftung*, Duncker & Humblot, 1908. = 居安正訳, 『社会学』(上), 白水社, 1994.

_____, “Brücke und Tür”, *Der Tag*, 15. September 1909. = 김덕영·윤미애 옮김, 「다리과 문」, 『집현의 모더니티 읽기』, 새물결, 2005, pp.263~270.

Weber, Max,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Archiv für Sozialwissenschaft und Sozialpolitik*, Bd. 20-21, 1904-1905. = 박성수 옮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문예출판사, 1996.

見田宗介, 「交響圏とルール圏——社会構想の重層理論」, 井上俊ほか編, 『現代社会学12 社会構想の社会学』, 岩波書店, 1996, pp.149~175.



■ 본 연구는 게오르크 짐멜(Georg Simmel)의 사회학을 ‘결합과 분리의 양가성’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지속되는 원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오늘날 사회학을 비롯한 인문사회학은 실용성과 사회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요구 속에서 자신의 학문적 의미와 역할을 새롭게 질문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인간과 사회를 자명한 것으로 전제하기보다, 인간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자체를 탐구하는 사회학적 사유의 의미를 짐멜의 사회학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짐멜 연구는 주로 문화철학, 모더니티, 이방인 등 특정 개념과 주제를 중심으로 그의 사상을 조명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상호작용 자체에 내재한 관계의 양가성에 주목하여 짐멜의 다양한 사회학적 논의를 ‘결합과 분리’라는 관계 형식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3자의 매개, 갈등, 대도시에서의 냉담함, 비밀, 사회 등의 논의를 검토하고, 각각의 사회적 형식에서 결합과 분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동시에 작동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짐멜에게 사회적 관계는 결합과 분리, 친밀성과 거리, 개방과 은폐가 서로 배제하는 대립적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관계 속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양가적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분리는 결합을 방해하는 외부적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의 형성과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며, 일정한 거리와 유보, 은폐는 관계의 단절이 아

나라 새로운 관계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형식으로 작용한다. 특히 사교에서 이러한 관계 형식은 ‘유희’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짐멜은 사회를 단순히 갈등과 제약의 공간으로만 파악하지 않고, 인간들이 서로 만나고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즐거움과 기쁨의 사회적 형식까지 포착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사회학이 사회의 비극뿐만 아니라 ‘사회라는 기쁨’을 함께 사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제약을 경험하는 동시에 기쁨과 즐거움, 유희와 자유를 경험한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는 비극과 기쁨, 결합과 분리, 친밀성과 거리의 긴장 속에서 형성되고 지속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짐멜 사회학은 인간과 사회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일상적인 관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적인 것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다. 이는 실용성과 직접적인 사회적 활용 가능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인문사회학이 인간과 사회를 낯설게 바라보고 그 관계의 형식과 의미를 발견하는 지적 탐구로서 지니는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주제어: 게오르그 짐멜, 결합과 분리, 양가성, 사회적 관계, 상호작용



Reconstruction of Georg Simmel's Sociology: Focusing on the Ambivalence of Connection and Separation

Lee, Ji Ye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Sociology · Lecturer)

■ This study reconstructs Georg Simmel's soci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mbivalence of connection and separation” and examines the principles through which social relationships are formed and sustained. Today,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cluding sociology, are being called upon to reconsider their academic significance and role amid growing demands for practicality and social applicability.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explores, through Simmel's sociology, the significance of sociological thinking that does not take human beings and society for granted but instead investigates the very processes through which individuals relate to one another and form social relationships.

Previous studies of Simmel have primarily examined his thought through specific concepts and themes, such as the

philosophy of culture, modernity, and the stranger. In contrast, this study focuses on the ambivalence inherent in interaction itself and reinterprets Simmel's various sociological discussions from the perspective of "connection and separation" as forms of relationship. To this end, it examines Simmel's discussions of the mediation of the third party, conflict, blasé attitude in the metropolis, secrecy, and sociability, and explores how connection and separation operate simultaneously within each of these social forms.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for Simmel, social relationships constitute an ambivalent structure in which connection and separation, intimacy and distance, and openness and concealment do not function as mutually exclusive opposites but operate simultaneously within a single relationship. Separation is not an external factor that obstructs connection; rather, it constitutes a condition that enables relationships to be formed and sustained. A certain degree of distance, reservation, and concealment does not signify the rupture of a relationship but functions as a social form that creates possibilities for new relationships. In sociability in particular, this relational form emerges as a mode of "play." Through this concept, Simmel captures society not merely as a space of conflict and constraint but also the social forms of pleasure and joy that emerge as human beings encounter and relate to one another.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that sociology needs to consider not only the tragedy of society but also the "joy of society." In relationships with others, human beings experience conflict and constraint while simultaneously experiencing joy and

pleasure, play, and freedom. Social relationships should therefore be understood as being formed and sustained amid the tensions between tragedy and joy, connection and separation, and intimacy and distance. From this perspective, Simmel's sociology provides an important theoretical resource for reconsidering how the social is generated through everyday relationships and interactions, without taking human beings and society as self-evident entities. At a time when practicality and direct social applicability are increasingly emphasized, this perspective also invites us to reconsider the value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s forms of intellectual inquiry that render the familiar unfamiliar and discover the forms and meanings of human relationships.

Keywords: Georg Simmel, connection and separation, ambivalence, social relationships, interaction

- ◎ 투고 접수 2026. 07. 07.
- ◎ 심사 완료 2026. 08. 03.
- ◎ 게재 결정 2026. 08. 07.